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서창~산월IC 오늘 개통

7월부터 통행료 1,000원 잠정 결정

신창·수완·하남지구 개발촉진 기대

광주 제2순환도로 서창IC~산월IC 6.5km 구간이 15일 개통된다. 제4구간인 이 도로의 개통으로 제2순환도로 37.66km 가운데 94%인 35.29km가 연결돼 신창·수완지구와 첨단·하남지구 등의 개발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서구 덕흥동 유덕영업소 광장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공사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는다. 개통구간 중 서창IC~신가지구(4.58km)는 제2순환도로로 출자한 민자 1천670억원과 시비 730억원이 투입됐고, 신가지구~산월IC(1.92

km)는 토지공사가 708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이종 민자 구간인 서창IC~신가지구는 제2순환도로가 오는 7월1일부터 30년간 유료로 관리·운영한 뒤 광주시에 귀속시킨다. 통행료는 1천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전체 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1구간인 동광주IC~소태IC(8.6km) 1천원과 3구간인 효령IC~서창IC(8.8km) 900원을 합쳐 모두 2천900원이 된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2구간 소태IC~효령IC(2.9km)과 호남고속도로 구간(10.9km)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제2순환도로 대표인 이동효(55%, 교원공제회 19.0%, 대안생명 15.0%, 교보생명 15.0%, 한라건설 12.75%), 삼성건설(7.65%), 진흥건설(5.10%) 등이 각각



출자했다.

한편 각하IC~호남고속도로 2.37km는 오는 8월,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문흥JCT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4구간 개통으로 이미 완료된 1~3구간과 호남고속도로까지 완전하게 연결함으로써 제2순환도로가 사실상 연결됐다”며 “신창·수완지구, 첨단·하남지구 등의 개발촉진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ju.co.kr

북구 인재발굴 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

광주시 북구가 지역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북구는 이를 위해 15일 오후 3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학계·유관기관·금융기관·기업인·의료인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북구는 구비 30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기업인 등에게 기부금 50억 원 이상을 기탁받아 오는 2011년까지 장학기금 8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학재단 명칭은 ‘(재)광주 북구 장학회’이며 올 하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는 앞서 지난 1월 장학재단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규정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각계각층 대표인 5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중점 홍보기간으로 선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탁자 발굴 및 기탁서 상설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장학재단 사업은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경기자 golee@



식중독 예방 캠페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이 14일 주월동 ‘빅시티’ 앞에서 ‘제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남구청 제공〉

인터넷 사랑의 편지, 우편배달 해줍니다

남구 ‘효사랑편지쓰기’

“부모님 안녕하세요 ^ ^ 저 아들 종찬이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현이가 아픈 게 저와 다행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지현이한테 사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광주시 남구가 운영하는 효 교

육전문 사이트 팜피아(www.fampia.com)의 ‘효사랑 편지쓰기’

코너에 남구 지역 초등학생들이 올린 편지들이 있다. 남구가 지난달 개설한 이 사이트는 네이튠이

편지 글을 남기면 관리자가 예쁜 편지지로 직접 출력해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전달해준다. 온라인의 사랑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시대의 새 서비스이다.

‘효사랑 편지쓰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남구청에서 부담하며, 이미 7천여 명의 학생들이 향사랑 편지쓰기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컴퓨터 자판에 익숙한 학생들이 부담없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부모와 자식·스승과 제자 간에 따뜻한 사랑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ju.co.kr

中 혁명음악 대부 ‘정율성’ 국제음악제

9월 베이징·10월 광주 개최

조직위 창립... 본격 준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열릴 ‘정율성 국제음악제’의 행사 일정이 확정되고,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는 등 정율성 국제음악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1914~1976)을 기리는 음악제가 오는 9월과 10월 중국 베이징과 광주에서 차례로 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국 정율성 음악제는 9월 9일 베이징에서 문화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베이징 음악정, 중국 문화부 소속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주▲

광주시립예술단 가야금 연주자·성악가 협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광주 정율성 음악제는 10월 19~21일 3일동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19일은 ‘우정’을 주제

로 중국 CCTV민악단과 시립국악관

현악단 등 합동공연이 펼쳐지며, 둘째 날(20일)에는 ‘교류’를 주제로 시립교향악단과 중국 성악가 등 협연, 셋째 날(21일)에는 ‘평화’를 주제로 중국·시립합창단·어린이합창단의 합창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정율성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갖고 음악제에 대한 세부 일정과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율성 음악제는 올해부터 광주시가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났으나 1933년 한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중국 인민해방군기인 ‘팔로군 행진곡’,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엔안송’ 등을 작곡했으며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ju.co.kr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탄력’

광

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이 시의 유럽투자유치 활동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4일 “최근 유럽 투자유치 활동에서 스웨덴의 세계적인 의료기 제조업체인 센세이스칸디나비아(Sensei Scandinavia)사와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원적외선 의료장비 생산업체인 이회사의 투자유치가

실현되면서 시가 주진하고 있는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진료와 휴양·관광·교육을 연계한 이른바 의료복합도시(100만평) 건설을 통해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의료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을 망라해 첨단의료단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복지

유치 활동(지난 1일~12일)에서 4건의 투자유치MOU와 공동연구 MOU 5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EU간 FTA체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시된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태리 등 5개국에서 진행됐다.

이번 유럽 투자유치 활동에서는

광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윤천기술의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투자지역 다변화를 모색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특수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기업 R사와 MOU체결은 오는 2015년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스웨덴의 세계 초일류 기업인 에릭슨사와 ETRI 광통신연구센터간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MOU는 향후 광가입자망(FTTH) 사업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ju.co.kr

영락공원 화장로

1시간 앞당겨 가동

광

주시립 영락공원이 15일부터 화장로 가동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긴다.

영락공원은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맞춰 오는 8월 말까지 화장로 1기를 증설한다.

영락공원은 앞서 지난 4일부터 유족 대기실에 TV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시간에 유족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화장이 늘고 있어 화장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동 시간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에 개장한 시립영락공원은 광주시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부지 103만 2천 m²에 민소 7개소·화장로 6기(일일평균 화장 23기) 등을 갖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ju.co.kr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 관광버스음식 대절 (각종 안주류)

☎ .(062)262-2278

(주)제주무궁화관광

◆ 제주도 현지여행사 ◆

◆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 등록번호 616-81-11280 ◆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드아아~ 뚜고출발, 놀동(고) 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제예술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 일정 · 1일차: 목포국제어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 출발-호텔 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 -호텔 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 토요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식사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 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 / 139,000원(주말)

오픈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활히

30,000원 (단, 미리 사전 예약에 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